



제목	The History of the Seljuq Turks From the Jami' Al-tawarikh: An Ilkhanid Adaptation of The Saljuq-nama of Zahir al-Din Nishpuri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Routledge
발행일	2010. 6. 3.
저자	C. Edmund Bosworth(편집자) Kenneth Allin Luther(번역자)
출판도시	Abingdon
페이지수	204
ISBN 또는 ISSN	978-0415583121

내용 요약

『자미 알-타와리크의 셀주크튀르크의 역사: 자히르 알-딘 니샤푸리의 살주크-나마의 일칸 판』은 셀주크의 위대한 술탄 토그릴 3세(Toghril III 1176~1194 재위) 시기의 셀주크에 관한 연대기이다. 12세기 니샤푸리의 글을 14세기 타와리크가 번역하였고, 이를 다시 루터가 번역한 책이다. 술탄 마수드(Sultan Masud)의 가정교사였던 니샤푸리는 토그릴에게 호의를 보내고 그의 시들어가는 행운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저자 니샤푸리는 셀주크 술탄들의 권력이 노예(mamluk)에게 있다는 주장과 ‘술탄이 노예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거부하였다. 왕권은 신성한 것이고, 노예의 생득권은 왕에게 있다. 왕족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노예는 심각한 결함을 가진 혈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노예에게 얽매이지 않고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젊은 군주 토그릴에게 전하는 역사서이자 조언서이다.

책은 셀주크의 조상들이 투르크스탄에서 트란스옥시아나로 이주한 때부터 토그릴의 계승 전까지를 다루고 있다. 또 지배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훌륭한 신하라는 것, 지배자가 신하의 판단에 의존한다면 왕국은 신하들의 투쟁과 음모로 채워질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례들을 담고 있다. 니잠(Nizam al-Mulk)의 가치와 타르칸(Tarkan Khatun)의 적대와 음모의 사례를 볼 때 “나이 든 신하를 섬겨서하는 사람은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저자는 논평하였다. 가장 최근의 술탄인 무함마드(Muhammad 1153~1160 재위)도 무능한 왕의 사례이다. 그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다룰 줄 몰랐고,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법을 모를 뿐 아니라 모든 권한을 노예에게 일임하였다.